

# 교계 결혼상담실 '불자가정이루기' 한몫

## 조계사·봉은사·우리는 선우 등 5곳...비용무료

봉은사, 조계사, 구룡사, 능인선원, 우리는 선우 등 교계에서 운영되고있는 결혼상담실이 불자들의 만남을 제공, 불자가정이루기에 선봉 역할을 하고 있다.

종교분제로 인한 고부간의 갈등이 심심치않게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요즘 결혼상담실은 불자들을 서로 맺어줘 사회의 핵이 되는 건강한 불자가정을 엮어내고 있다.

개발만남으로 신창회원의 신상에 대해 파악 하고 조건이 맞는 원하는 사람과의 만남을 주선해 주고 있는 이들 결혼상담실들은 특히 불자 커리어, 사위를 맞고자 원하는 보살들의 문의가 쇠도한다는 것.

총회원 4백35명을 확보, 2백여차례의 맞선주선으로 5쌍을 결혼시킨 봉은사 결혼상담실 조진희 총무는 "주로 회원들이 20대 후반에서 30대, 40대로 본인 스스로의

신청보다는 혼기를 놓친 자녀를 안타까워한 부모들의 대리신청인 경우가 많으며 재혼신청자도 있다"며 상담비용은 일체 무료라고 했다. 이와함께 봉은사 결혼상담실은 회원들에게 청년회, 영요법회의 참석을 권유, 불자들의 인연의 자리를 유도해내고 있다.

지난해 결혼상담소를 통해 불자버너리를 얻은 정심화보살(서초구 서초동)은 "매주



◇ 결혼상담실은 신뢰를 바탕으로한 성실한 상담으로 불자가정 이루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일요일이면 며느리와 짝에 같이 나가게 돼 참 좋습니다. 지난번에는 성지순례도 함께 갔다와 딸보다도 더 친근하고 믿음직스러워요"라며 며

느리 자리에 한창이다. 아직 우리사회에는 결혼상담에 대한 사회의 시선이 좁지만은 않으며 재혼위주등 선입관이 여전하다. 이러한

상황아래 현재 운영되는 결혼상담실은 개척자적인 견지에서 성실한 운영으로 불자들의 인연맺음에의 기회를 점차 확대시키고 있다.

우리는 선우의 결혼상담실은 원래부랑 한영목씨는 "결혼상담소는 단순히 남녀를 짝지어주는 곳이 아니라 참불자가정을 이루고 건강한 사회의 기틀을 마련하는 포교사업입니다."면서 행복의 첫관문인 결혼을 올바르게 이끌어내는 것이 결혼상담실의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했다.

결과보다는 서로 만나는 과정을 통해 인연을 따라 자신과 행복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강요나 동정으로 결혼을 유도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결혼을 앞두고 직면하게 되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상호이해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전문상담인력의 양성, 교계 상담기관간의 연대를 통한 효율적 운영등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를 안고 있는 교계 결혼상담실들은 아직은 열악한 상황이지만 관심들이 점차 높아지고 있어 포교의 차원에서 그 역할이 커질 전망이다.

(이은자 기자)

부산여성불교대학 포교사반 개설

'큰 지혜·참마음·바른 실천·나누는 기쁨'을 학습으로 삼아 부산지역의 여성불자들을 위한 교육으로 꾸어내고 있는 부산여성불교대학(학장 정봉화)이 오는 22일 포교사반을 개설한다.

지난해 10월 기초교리반 강의를 시작으로 문을 연 부산

여성불교대학은 불교의식반, 문화교양반에 이어 포교사반을 신설하고 이론과 실천을 겸비한 체계적인 교육으로 여성포교사들을 길러내게 된다.

부산여성불교대학 학장정봉화씨는 "교육을 통한 여성전문인재 배출로 신생활을 통한 사회활동을 이끌어 내

겠다"면서 앞으로 여건이 성숙되는한 체육, 건강, 레크리에이션등을 장식과목으로 채택해 실생활에 활용되는 교육의 실시로 여성불자들의 활동의 영역을 넓혀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051)866-05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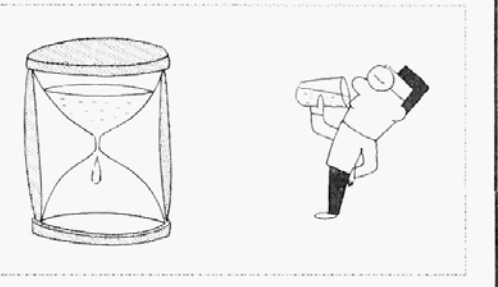
결혼상담실 관계자들은 몇쌍의 결혼이 이루어졌나하는



요즈음 겨울 가뭄이 심하여 남부지방에는 식수 비상이 걸렸다. 신문에 난 사진을 보아도 저수지의 바닥이 거북이등처럼 갈라져 있는 것을 보면 가뭄이 심각하다. 그러나 더 안타까운 것은 가뭄으로 인해 수질이 더욱 악화됨으로써 그

질량을 우리들이 잘 관리하지 못함으로써 수질의 오염을 가중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수도물을 믿지 못하고 생수다 약수다 하고 난리를 피우지만 그 물 역시 관리를 잘하지 못하면 다른 오염원 물이나 다름 바가 없겠다. 우리 인체는 여러가지 원소들이 모여 이루고 있지만 그 가운데 물이 75~85% 차지함으로써 우리 몸의 증식물질은 이

2리터 정도의 물을 인체는 공급을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그렇다고 해서 1리터짜리 주전자에 물을 두 주전자를 머리맡에 놓고 발탁발탁 마시라는 뜻은 아니다.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물에는 주되게 물이 함유되어 있고 목이 마를 때 마시는 물 등을 합하면 대개 2리터정도 된다. 우리 인체도 물이 부족하면 자연계의 가뭄현상으로



### 생활폐수·농약으로 식수오염...관리 절실

#### 마하승지율 "벌레 있으면 걸러서 마셔라"

물은 식수로 이용하기가 부지럽다. 물에 관한 건강지표들 우리에게 알리는 세계보건기구의 권장 가운데 첫번째가 "물을 올바르게 마셔라"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올바르게"라는 지침이다. 하루에 적어도

일어나는 변화의 이치와 같고 물이 너무 많으면 장마때의 자연이치와 같은 변화를 보인다. 올바르게 물을 마시려고 해도 그 물 자체가 오염되어 있다면 아무리 올바르게 마신다고 한들 우리 몸이 성할 이치가 있겠는가.

"벌레가 없으면 물을 음료수로 써도 좋으나 만약에 물에 벌레가 있으면 걸러서 마시도록 하라" 이 말씀은 마하승지율에 나오는 말씀이다. 여기서 벌레는 눈에 보이는 미생물 뿐만아니라 오늘날 생각하면 미생물 등 눈에 보이

지 않는 것까지 포함되며 나아가서는 여러가지 오염물질을 함께 포함시켜 이해할 수가 있을 것이다. 벌레를 걸러서 마시라는 말씀은 단순히 살생하지 말라는 좁은 의미로만 해석하지 말고 올바른 물을 마시기 위한 적극적인 자세로 이해해볼 필요가 있다. "물을 걸렀습니까?"하고 물어보고 아직 안걸렀다고 말하거든 걸러서 먹으라고 가르치라고도 하고 있다. 그런 실행이 올바르게 하겠다.

### 이런 후 건강칼럼

<17> 물

## 책방 여시아문

오심시오

오시는 길

**· 국내 최대의 불교전문 서점 (5천 여종, 3만 여권)**

- 불교관련서적(역사, 철학, 사회과학 등 명라)
- 영인본, 회귀본, 질관본, 열람 가능
- 편리한 도서안내
- 편안한 독서 공간
- 도서상품권 취급

**· 저자와의 만남(격월)**

- 계절별(분기별) 책잔치 개최
- 통신판매-전화, 팩스 주문 가능
- 컴퓨터를 이용한 편리한 도서 검색

**· 도서회원제 운영 (1995. 4. 1.부터 시행 예정)**

**회원특전**

- 현대불교신문사, 도서출판 여시아문 발행도서에 대한 회원 우대 사은권 제공
- 소식지를 통한 도서 정보 제공
- 통신 주문
- 전화 도서 목록 검색 서비스 (737-0695)
- 책방 여시아문·현대불교신문사 주최 행사 우선 초대

책방 여시아문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전화(대표) 737-8881 (서점직통) 737-0695 / 팩스 737-0696 / 교통편 전철 1호선 종각역, 3호선 안국역 / 버스 32, 59, 84, 159, 331, 588-2번